
Q&A로 알아보는 생활안전지도

2015. 12.



국 민 안 전 처

[안전정책실 · 국립재난안전연구원]



목 차



【기본사항】

Q1. 생활안전지도란?	1
Q2. 교통안전이란?	1
Q3. 재난안전이란?	1
Q4. 치안안전이란?	2
Q5. 맞춤형안전이란?	2
Q6. 생활안전지도 서비스에 활용된 기초자료는?	2
Q7. 생활안전지도 DB자료의 갱신주기는?	2

【향후 현행화 및 확대 운영방안】

Q8. 생활안전지도 서비스 시범공개 이후 반응은 어떠한지?	3
Q9. 생활안전지도 향후 계획은?	3
Q10. 생활안전지도 서비스 현행화 방안은?	4
Q11. 전국공개에서 생활안전지도 서비스의 개선된 점은?	4
Q12. 생활안전지도 서비스의 기대효과는?	5

Q1 생활안전지도란?

○ 생활안전지도란 국민 개개인이 생활주변 위험에 관심을 가지고 스스로 대처할 수 있도록 국가가 보유한 필수적인 안전정보들을 지도상에 통합하여 언제 어디서나 사용할 수 있도록 인터넷(www.safemap.go.kr)와 스마트폰 앱으로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 기존4대분야 (교통, 재난, 치안, 맞춤형안전) 229개 지자체 전국서비스

* 신규4대분야 (시설, 산업, 보건식품, 사고안전) 15개 지자체 시범서비스

Q2 교통안전이란?

○ 교통안전은 교통사고 다발지역 및 교통안전 발생정보를 활용하여 이용자의 계층 및 시간대별 교통안전정보(등하굣길, 무단횡단, 자전거, 출근길사고 등 교통사고 통계 및 현황)를 제공하는 서비스입니다.

Q3 재난안전이란?

○ 재난안전이란 지역별 산불, 산사태, 붕괴, 지진, 화재, 침수 등 재난 발생 정보를 제공하며 침수, 산사태 등 재난 발생을 대비한 우리동네 안전한 대피소 정보를 제공하는 서비스입니다.

Q4 치안안전이란?

○ 치안안전이란 강도, 성폭력, 폭행 등 범죄발생 정보를 제공하며, 이용자의 접속 시간대에 맞는 치안안전 정보(안전녹색길과 치안사고 통계 및 발생현황)를 제공하는 서비스입니다.

Q5 **맞춤안전이란?**

- 맞춤안전이란 범죄, 교통, 재난 등 분야별 정보를 종합 분석하여 어린이, 여성 등 안전 취약계층별 맞춤형 안전지도(어린이 교통안전·치안안전, 여성 교통안전·밤길치안안전, 노약자 교통·치안안전)를 제공하는 서비스입니다.

Q6 **생활안전지도 서비스에 활용된 기초자료는?**

- 생활안전지도서비스를 위한 기초자료는 총 126종('15년 12월기준)이며 행정자치부, 여성가족부, 보건복지부, 국토교통부 등 총 20여개 기관 및 229개 지자체에서 원천 기관별 갱신주기에 따라 업데이트된 자료를 온라인 또는 오프라인 방식으로 수집 및 제공된 원시자료를 이용자가 이해하기 쉽고 활용하기 쉽게 가공 처리하여 제공되고 있습니다.

Q7 **생활안전지도 DB자료의 갱신주기는?**

- 20여개 기관 및 229개 지자체에서 원천 기관별 갱신주기(매년, 매월, 수시)에 따라 업데이트될 예정이며, 현재 2015년 7월까지 현행화된 최신 자료로 지도서비스 중입니다. 또한 매년 제작시점을 기준으로 최신성을 보유한 갱신된 자료를 이용하여 현행화 작업을 수행할 예정입니다.

Q8 생활안전지도 서비스 시범공개 이후 반응은 어떠한지

- 경찰청 등 관계기관, 국민, 전문가 등 다양한 계층을 대상으로 10여 차례 정책설명회를 통해 의견수렴('13.10~'15.12)한 결과, 생활안전지도 공개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긍정적임
- 서비스 이용자 만족도 조사 결과, 대상자의 80%이상이 긍정적인 평가
* 생활안전지도 웹 사이트 접속자 100명 대상, 만족도 조사('15.5.26~6.5, 86.3점)

Q9 생활안전지도 향후 계획은?

- 기존 4대분야(교통/재난/치안/맞춤안전)에 대하여 229개 전국지자체로 확대 구축하였습니다.
- 생활안전지도에서 통합된 공공데이터를 개방하기 위하여 ‘생활안전지도 정보개방 민관협의체’를 2015년 6월에 구성,
 - 16개의 공공기관에 생활안전지도를 제공하였으며, 2015년 11월 산림청과는 재난정보 공동활용을 위한 협의
 - 민간기업과도 지속적인 정보공개 협의를 통해 네비게이션 업체에 생활안전지도 40여종의 정보를 제공, 2016. 1월에 관련 서비스가 공개될 예정

Q10 생활안전지도 서비스 현행화 방안은?

- 생활안전지도 서비스는 국민에게 최신의 정보를 제공하기 위하여
원천 자료 제공기관의 온라인 연계환경을 마련
 - 타기관의 재난안전정보 연계를 지속적으로 추진
 - 최신화(현행화) 기간을 단축하기 위하여 자료 현행화 도구를 개발
 - 시스템 유지관리를 위한 운영조직을 마련하여 정기적으로 현행화를 추진할 계획

Q11 전국공개에서 생활안전지도 서비스의 개선된 점은?

- 2014.9월 15개 시군구 시범공개, 2015.1월 115개 시범지역 확대공개를 통해 생활안전지도에 대한 일반국민, 해당 지자체 공무원 및 전문가의 의견을 지속적으로 수렴하여,
 - 1) 국민참여형 서비스 제공
 - 생활안전지도 서비스의 활성화를 위하여 안전신문고와 안전모니터링 봉사단의 신고정보와 신고처리현황정보 표출서비스 제공(2015. 8월)
 - 국민의 신고정보와 생활환경주변의 안전정보를 동시에 확인할 수 있는 기반마련
 - 2) 다양한 안전관련 정보개방 창구역할
 - 생활안전지도를 통해 지역의 안전도를 나타내는 지역안전지수 대국민 공개 창구로 7월부터 제공(11월 4일 7개 분야 정식 공개)
 - 3) 누구나 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메뉴구조 개편
 - 치안·교통·재난·맞춤안전등 4대분야 전국서비스 공개에 맞춰 생활안전지도 서비스 메뉴구조를 전면 개편

- 국민누구나 쉽게 서비스를 이용할 있는 일반국민용 서비스메뉴와 기존서비스 메뉴구조를 고도화한 전문가용 서비스로 동시에 제공

4) 실시간 정보서비스

- 도로교통공단의 교통돌발정보(UTIS*), 한국환경공단의 오존·대기질수·미세먼지 정보 및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의 환경방사선 정보 등
- * UTIS(중앙교통정보센터)의 도로위험상황, 교통사고정보 등을 실시간으로 제공

5) 모바일 알림서비스

- 안전신문고·안전모니터링봉사단의 신고 및 처리현황정보, 교통돌발정보, 미세먼지 등을 출퇴근 및 등하교시간에 맞춰 위치기반으로 알려주는 모바일 알림서비스를 추가로 제공

Q12 생활안전지도 서비스의 기대효과?

- 지금까지 각 기관별로 관리하고 있는 안전에 관한 정보는 대부분 행정기관 내부에서만 활용되어 공개되지 않거나, 국민에게 공개되는 정보도 개별 시스템을 통해 분산적으로 제공되어 국민들의 관심과 인지도가 높지 않은 상태였습니다.
 - 이러한 불편을 해소하고자 생활안전지도 서비스를 통해 위험정보와 주변의 안전시설 현황 등 안전정보를 종합적으로 제공함으로써
 - 국민들은 평소 안전에 대해 관심을 갖고, 생활주변 위험에 스스로 대처하고, 자율방범대 등 주민들의 적극적인 안전개선 활동을 유도하고,
 - 지자체는 안전취약지역에 대해 우선적으로 재정을 투자하여, 효과적인 안전관리 예산집행을 통한 지역안전 개선을 지원 할 수 있는 효과를 제공합니다.